

# 전주한옥마을 1000만 관광시대 '성큼'

2014년8월~지난해 9월  
1년 방문객 965만3035명  
매출액 1150억 집계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시대에 성큼 다가왔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5억원을 들여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연간 965만3035명, 매출액은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과 현대카드 매출 데이터, 포털사이트 리뷰와 평점 등 SNS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객 특성 및 주요 유입지, 한옥마을 유입인구당 매출효과, 지역축제기간 한옥마을 유입 및 매출 영향도 등의 분석이 이뤄졌다.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수는 전주 거주자를 제외한 전국 트래픽(정보이용량) 인구를 토대로 했다.

체류인구의 경우 시외지역에서 유입된 유동인구 중 오후 3시 기준 마지막 트래픽 위치가 전주이면서 다음날 새벽 3시 기준 트래픽 위치도 전주인 경우로 정의했다.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은 일 평균 2만 6447명으로 연간 965만3035명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축제기간이 집중돼 있는 5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20~40대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는 주말과 휴일에 10~30대를 중심으로 주중보다 27%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전주와 전



전주시 기린회,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기린회 회원 30여명은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전주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주한옥마을을 찾는 20대 및 가깝단위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인구가 연간 약 330만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또한 전주에서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문화축제가 열리는 5월초의 경우 방문객 수가 축제 전후에 비해 무려 40% 이상 증가했고, 전북지역 축제로는 남원 춘향제와 군산시간여행 기간에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남원과 군산지역 축제 방문객들이 전

주한옥마을과 연계해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역과 관광객의 주요 집결지를 핫스팟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주역을 지나 전북대와 덕진공원, 터미널과 전주한옥마을, 전주 원도심 일대와 전주박물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어 한옥마을을 관광객 분산을 위해서는 전주 시내 남과 북, 동서를 연결한 관광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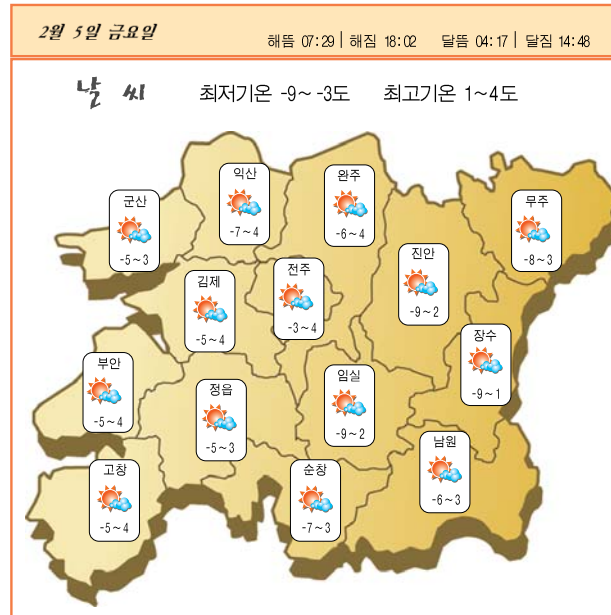
이밖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에 하루 평균 8500여명의 찾고,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유입으로 한옥마을 매출규모는 연간 115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30대와 40대 매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형성됐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관광객의 수요와 동선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관광객의 요구에 맞는 관광정책을 만들고 관광객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방안 마련 관광 인력 분산 방안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북교육청, 역사교육 강화한다

체험학습 확대 · 교장 자격연수에 역사관 독립과목 편성

학생들의 역사 현장체험학습이 확대되고 교장(감) 자격 연수에 역사관을 2시간 이상 독립과목으로 편성되는 등 역사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교육 강화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역사교육에 초점을 맞춰 전북 지역의 역사 현장 체험, 역사 체험 대회, 유적지 답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도교육청이 기존 개발 보급한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전북도 근현대 인물 이야기' 등을 교과 시간 등에 2시간 이상 수업하도록 권장하고 초등 3학년 '지역의 생활', 4학년 '전북도 생활' 등

지역화 교재가 올해에도 개발돼 보급된다.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라 균형있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3월 집필기준 설정하고 2017년 8월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역사와 수업 전문성 향상 연수, 교장(감) 자격연수 '역사관 독립과목 편성, 교감 자격 연수 응시 대상자 한국사 3급 이상 또는 6시간 이상 한국사 연수 받은 사람 대상 맞춤형 독도교육 등이 예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전북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 코레일 전북본부 설 특별수송 대책본부 운영

코레일 전북본부는 설 귀성객 편의를 위해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설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기준 일일 182회였던 열차운행 횟수를 18회(KTX 6회, 새마을 4회, 무궁화 8회) 증차한 200회 운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전북지역 열차이용객은 약 25만명(일평균 4만2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대수송 기간 중 전북지역 주요역에서는 기차놀이 플래시몹, 우리가랑으로 신명나는 풍물놀이, 가족 고객을 위한 풍선아트, 어린이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도, 3D프린팅 보급확산 교육생 1만명 배출

초·중·고 찾아가는 열린 교실 · 기업체 현장교육 · 일반인 등 활용교육 운영 중

전북도가 2014년부터 시행한 3D프린팅 보급확산 교육 사업이 3년차를 맞으면서 교육생 1만여명을 배출했다.

4일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체험교육과 전문교육, 예로기술지원 사업에서 77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10,5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산업체에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3D프린팅 열린 교실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3D프린팅 현장교육, 창업희망자 및 주

부,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3D프린팅 활용교육(초급/중급/고급)을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도는 기존 교육 및 기업지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3D프린팅 공무원교육 시행,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위한 전북발전협의회 발족,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3D프린팅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3D프린팅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의 역량강화를 통해 3D프린팅 보급확산과 산업을 촉진하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 3D프린팅 이해 및 활용능력을 갖추게 돼 D프린팅 기술의 확산·전파 및 홍보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3D프린팅 교육 참여와 기업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 학교와 일반인·재직자·학생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전북 3D테크플라자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전북 교사 징계 지난해 3배 증가

전북도 교사들의 기강해이가 지난해 최고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북도내 교사에 대한 징계가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징계를 받은 교사는 중징계 19명, 경징계 23명, 불문경고 33명 등 총 75명으로 2013년 22명, 2014년 25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교사들의 징계 증가 주요 원인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

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반발해 기재하지 않은 도내 18명 교장 전원이 불문경고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학생간 성폭력을 은폐한 특수교사 6명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8월 외부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행태를 보인 무주 S고 교사 16명의 무더기 징계까지 포함됐다.

특히 최근 3년 새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이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은지 기자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도시 '익산'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로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왕궁리유적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FOODPOLIS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